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학교, 활발한 전도활동

순수 전도 및 총 출석 등의 목적 가지고 계획하며 준비
전 교회학교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실시

교회학교 각 부서는 6월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연초부터 자발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1년 동안 꾸준히 실시할 수 있는 전도운동으로 진행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준비를 통해 보다 효과 있는 전도운동으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교회학교의 전도운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주변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현교회 교회학교에 적을 둔 학생 중 장기 결석자나 부모가 충현교회에 나오지만 학생들이 안나오는 경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학교의 많은 부서가 우선 적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을 초청해 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위치와 교회 주변 주택가가 별로 없음을 볼 때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교회학교 출석률이 60-70%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지난 해 초등1-6부 연합으로 실시한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의 초점도 부모는 충현교회에 나오는데 자녀가 거리상의 문제



▲ 지난 5월 20일(화) 저녁 대학, 청년부 회원 300여명이 명동에서 전도활동을 했다.

로 충현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추어졌던 것이다.

이런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온 가족이 다함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충현교회 교인들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교회학

교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대학, 청년부는 '97 충현 젊은이와 함께라는 연합행사'에서 이미 지난 5월 20일(화) 시내 명동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전도활동을 폈다. 또한 6월 1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한달 동안 실시해 온 행사와 연결하여 장기

결석자, 청년교구에서 확인한 사람, 대학,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교회 내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동원주일을 실시한다.

유치부는 지난 5월 25일을 총동원주일로 정하여 등록을 한 후 나오지 않는 어린이들을 다시 유치부에 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교사들은 기도와 전화심방 등을 했고 아이들은 5월 18일(주일) 3부예배 후 본당 앞 계단에서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어른들에게 유치부의 총동원주일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유년부는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청전도잔치를 열었다. 예배가 끝난 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착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성극을 공연하였다. 유년부는 올초부터 계속적으로 교사들이 학원전도를 실시해 왔다.

장년2부에서도 5월 25일을 학생 총출석의 날로 정하고 장년2부에 등록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고등부 또한 장기 결석자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총동원 전도를 지난주에 실시했다.

6월에도 교회학교 각 부서의 총동원 전도는 계속된다.

이러한 일련의 각 부서의 자발적인 전도운동이 바르게 자리잡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부교양 강좌 막올라

6월 5일(목) 시작으로 4차례 실시
첫 강의는 이기연 교수의 '스트레스 해소'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 지도장정철 목사)는 제3기 주부교양강좌를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충현복지관에서 실시한다.

지난 해의 1, 2기에 이어 실시되는 주부교양강좌는 성도들이 자기 주변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신자로 정하고 기도해 오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문화를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부담없이 교회 문화에 접해 보게 하는 간접 전도의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제기되면서 교회를 개방하여 안 믿는 이웃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강좌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초빙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제3기 강좌도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부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여성상에 대한 주제로 정했다.

강좌 첫째날인 6월 5일(목)에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으로 이기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 원주의대 정신과 외래교수, 문막기독병원장)가 강의하게 된다.

이 교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극동방송 '소망의 전화'에 8년 동안 출연하여 많은 상담을 실시했고 또한 KBS 제1라디오 및 TV에 고정 출연하여 방송상 담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성찬식 이 지난 5월 25일 주일 1, 2, 3, 4부예배시간에 행해졌다. 예배시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을 다시 확인하며 지나온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앞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의 성찬식을 거행한다. 세번째 성찬식은 8월 31일(주일)에 실시하게 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패역한 유다의 결과

(이사야 1:5-9)

이 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패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나 원인과 과정과 내용과 결과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혹은 벌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한 결과로 오는 무서운 매(재앙)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 패역을 더하면 매를 맞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책망을 받고 좀더 잘못하면 더 심하게 책망을 받지만 아주 패역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매를 맞게 됩니다.

(1) 패역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패역이란 알고도 거스른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몰라서 거스르는 것은 미련이지 패역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옳은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짓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패역은 책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아야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징계를 받고도 고칠 마음은 전혀 갖지 않고 더욱더 패역합니다.

(2) 패역을 더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① 지도자들이 혼미해졌습니다.

“온 머리는 병 들었고”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정신병이 들었다면 백성은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갈빗대가 부러질지 모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면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영생의 은혜를 받기 원하다가 이단에게 끌려가 손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병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미치광이가 된다는 것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② 잠시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한 시간도 편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병들었으니 온 백성은 피곤하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전신이 성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발바닥”이란 말은 낮은 사람들을 말하고 “머리카락”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백성이나 지도자가 똑같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짜며”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썩어서 고름이 가득 피었습니다. 또 그것을 짜야 하는데 짜고 짜매 주거나 약을 발라줄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부패해져서 주사 바늘을 꽂을 자리도 없을 정도까지 악화될 것입니다. 성한 곳이 좀 있어야 주사를 놓겠는데 발바닥에서 머리카락까지 다 썩었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입

니다. 어린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 썩었으니 이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희망이 없어졌다는 비참한 말입니다.

④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하도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젠 안되겠다’ 하며 몽둥이를 들고 끝장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이 썩었습니다. 나무가 모조리 썩었으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기왓장을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밤을 자고 가려 했다가 그날 밤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어서 썩은 나무 기둥이 부러지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깔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패했으므로 하나님이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는 것은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회개할 기회를 열 번, 스무 번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못된 짓만 더 하고 더 하면 마지막으로 몽둥이를 드십니다.

2. 어떤 매를 맞습니까

(1) 농촌이 흉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흉년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데도 사람이 죄를 계속 범하면 마지막으로 무서운 흉년을 주십니다. 흉년은 다섯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떤 때는 홍수가 나서 흉년이 옵니다. 둘째로,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옵니다. 셋째로,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서 흉년이 옵니다. 넷째로, 어떤 때는 무서운 해충이 먹어서 흉년이 옵니다. 다섯째로, 어떤 때는 전쟁이 나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은 부패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자연만물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2) 도시가 저주를 당합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이 가장 사랑하던 성읍이란 뜻입니다. 부모님은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지만, 키울 때는 아들에게보다는 딸에게 사랑이 더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딸 시온”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이 가장 화려했던 성읍이란 뜻입니다. 자녀들을 키워 보면 아들은 교복 한 벌만 해 주면 별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는 것은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회개할 기회를 열 번, 스무 번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못된 짓만 더 하고 더 하면 마지막으로 몽둥이를 드십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아무래도 예쁜 옷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 시온”은 화려하게 단장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금으로 장식했으니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과 장관 부호들의 자택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딸같이 사랑을 받고 화려하게 꾸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발의 상직막같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포도원에는 도적을 지키기 위해서 막을 치는데 그것이 화려합니다. 참외밭에 있는 상직막을 시집갈 딸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그렇게 꾸밈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원두발의 상직막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원두발의 상직막”이란 말은 첫째로, 초라해졌다는 말이고 둘째로, 위태롭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가 쉽고 또 보호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보잘 것 없이 비천해졌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에 몇십 층 빌딩을 지어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고속도로가 뚫는 것도 좋고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좋고 시민들이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면 흉년이 들고 원두발의 상직막처럼 될 것입니다.

(3)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에 흉년이 들어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성이 하나 둘 망해가도 회개할 줄을 모르면 별 도리가 없이 남아 있는 백성까지 아주 망해 버립니다.

3. 패역한 자에게 배푸신 최후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그래도 조금 남은 것은 시민들이 실력이 있었거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임금이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막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이 깨닫고 회개하면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남겨놓은 기간에 회개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심판을 앞에 놓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악마에게 미혹을 당하면 사람이 짐승만 못하게 됩니다. 악마에게 미혹을 당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세력이 높아도 짐승만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악마에게 미혹을 당하여 짐승만 못한 미치광이는 되지 맙시다. 둘째로, 조금 남겨두신 기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힘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여 마음으로는 배반하고 마지 못해 순종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 흉내마저 버리는 날에는 아주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예배가 과연 신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겉대기만 남았습니까. 겉대기만 남은 것까지도 짐이 된다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는 아주 없어지는 날이 올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므로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우리 전도회 자랑 / 베드로 5지회 ◇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도회

안 병 만
(집사, 베드로전도회 5지회장)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항상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전도회 5지회는 5교구(개포, 일원, 수서, 양재, 포이, 우면, 신원, 내곡 지역)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믿음이 있는 40대 남성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음과 사랑으로 합심하여 전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회원은 130여명입니다.

저희 전도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정말 뜻깊은 날, 5교구 교역자이신 정광욱 목사님과 장영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일원동에 있는 박옥현 집사님댁에서 부부동반으로 포근한 사랑의 친구 모임에 가졌습니다. 마침 얼마전 옆동네 아파트에서 이곳 개인주택으로 이사하셨기에 이것을 축하하는 집들이 의미도 있었습니다.

해 내려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점점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태산같은 사랑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화 주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시되, 직장내 신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현교회가 부흥 발전되게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평화롭게 복음으로 하나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 "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넋시, 여호와 라파, 목이 터져라 찬양하였습니다. 그날 밤 모임에 참여한 인원은



이번 5월 월례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원 가족들은 더욱 기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상처를 보듬어 주기(?) 대화의 시간, 또 즐거운 가족대향 율놀이 게임, 그리고 이어서 최종 우승자 및 패자에 대한 상품 수여식 거행 등 사랑의 교제를 듬뿍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 전도회원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는 말씀을 가슴가슴마다 깊이 새겼습니다.

또한 저희 전도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충현기도원에서 부부동반으로 철야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밤이슬 내리는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발 저희들 소원들여 주옵소서. 저희 전도회원들을 지켜 주시고, 온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하나로 합심하여 경배와 기도드린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전도회에서는 지난 3월 2일 선교관 212호에서 가족찬양대회 및 성경퀴즈대회를 가졌습니다. 전도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모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회에서는 그동안 미자립 놓여온 교회를 돕는 일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전동교회(충남 소재)에 매월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도회에서는 힘을 쏟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부부동반 야외예배라든지 가족동반 체육대회 행사 개최, 불우이웃돕기 등 뿐만 아니라 전도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도특강세미나 부문에 대하여서도 힘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친구, 구제, 전도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많이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서를 찾아서 / 교회학교 유치부 ◇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유치부 어린이들

교사와 학생 1:1의 에바다반, 찬양대 등

주일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에 교육관 205호에서 모여

유치부(부장 이종섭 장로, 지도 한영준 전도사)는 만 6세부터 7세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라는 주제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라는 말씀을 갖고 한 해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5월 한달동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자'라는 표어를 갖고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이 유치부에 올 때는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렵지 않을 만큼 자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찬양대도 있다.

유치부에서도 설교 시간에는 그림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좀더 효율적이다. 예배가 마치면 광고와 새친구 환영, 생일 축하 시간이 있

교육방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치부에는 에바다반이 있다. 이 반은 장애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사회 적응력을 키워 주기 위해 올해부터 생긴 반이다. 아이는 5명이고 선생님은 4명으로 거의 1대 1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 5명의 아이들이 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예배는 1부 8시 50분, 2부 10시 50분, 2번 드린다. 그런데 2부 예배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혼잡하다. 그래서 교회의 제직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1부 예배때 참석시켜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육관 205호인데 이곳은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 겨울에 좀더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게 온돌방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카페트 사용으로 먼지



다. 그후 반끼리 성경공부를 하는 분반공부 시간이 있다. 만 6세 꽃반, 만 7세는 열매반으로 각각 21반씩 나누어져 있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다. 공과 교제와 그 내용에 맞게 그려진 그림으로 이 시간이 진행된다. 또한 이 그림은 평일날 색칠을 해서 다음 주 일날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평일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좋은

가 많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공기청정기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이들이 좀더 좋은 여건에서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선생님들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앞으로 천국일꾼이 될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취재수첩

소년부의 '작은음악회'

지난 주일 소년부에서는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배 후에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악기 연주, 2부에서는 중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 시간은 소년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1부와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박노철 전도사의 특별 찬양과 임마누엘찬양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찬조 찬양이 있



었다.

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간이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은혜롭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장년1부의 암송대회

장년1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주일)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 성경말씀은 요한1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었다. 이 대회에 12명이 참가하여 3명씩 한 조가 되어



한조씩 다른 방에서 따로 따로 암송을 하게 되었다. 결과는 오늘 발표하고 참가자에게는 상품과 기념품을 전달한다.

영성훈련 / 박형용 목사

지난 5월 25일 남녀전도회가 보다 더 전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위원회에서는 박형용 목사(협동목사, 장년1부 지도)를 강사로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4-49절로 '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었다.

총동원주일 이모저모

5월 25일(지난 주일)에는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장년2부에서 각각 총동원주일, 초청전도잔치, 총동원전도주일, 학생 총출석의 날이라는 이름의 행사들을 개최했다.

유치부에서 한 총동원주일은 등록을 한 후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다시 유치부에 계속 출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기도과 전화 심방 등을 했고 아이들은 5월 18일(주일) 3부예배 후 본당 앞 계단에서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며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며 어른들에게 유치부의 총동원주일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날 온 아이들은 8명이고 이 아이들은 유치부의 신입반에서 4주를 보낸 후 등반하게 된다.

유년부에서 한 초청전도잔치(우측 사진)는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행사로는 예배가 끝난 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착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극이 공연됐다. 울로부터 계속된 선생님들의 학원 전도와 어린이들의 노력으로 이날 12명의 아이가 새로 왔다. 이 어린이들은 유년부의 신입반에서 4주를 보내고 등반하여 8주를 지내야 확실한 유년부학생이 된다.

장년2부에서 한 학생 총출석의 날은 장년2부에 등록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참석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선생님들은 전화 심방과 기도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은 그동안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던 회원들이 많이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등부에서 한 총동원 전도주일은 5주 이상 나오지 않은 장기 결석자들을 출석케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 결석자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또 각 학교들의 모임인 둘로스를 강화시켰다. 이 모임은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고 고등부 예배엔 참석하지 않는 자들과 고등부의 장기 결석자들을 고등부 회원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미국명 목사(고등부 지도)가 둘로스 지정 학교를 방문하여 신앙의 어려운 점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온 새 친구들은 42명이고 장기 결석자가 출석한 수는 39명이다.

이 날 나온 친구들과 원래 고등부 회원들을 위해 고등부에서는 6월 6일(금) 고등부 체육대회를 마련했다. 본당 앞마당에서 벌어질 이 행사는 학교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학생들에게 쉼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초등부에서는 7월에 실시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 금식 기도회를 오늘(6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중등3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공과 18과까지 배운 내용이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6월 8일(다음 주일) 교육관 514호에서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는 6월 5일(목) 오후 7시부터 6일(금) 오후 4시까지 총현기도원에서 새가정부 수련회를 갖는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가정'(행 10:24)이라는 주제 아래 상봉환 목사를 강사로 하여 모이는 이번 수련회에 새롭게 가정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탁아부에서는 오는 6월 8일(다음 주일) 3부예배 후 베들레헴홀(탁아부실)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어 시간에는 구명신 전도사가 '영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 강의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함께 방법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탁아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중창경연대회를 실시한다.

▶ 실로암찬양대와 아멘찬양대에서는 오는 6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나사렛홀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이날 수련회는 이훈 장로의 사회, 박경환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강임구 집사의 기초이론, 복식호흡과 발성 및 발성실습에 관한 특강, 한정남 전도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 강습회, 6월 2일부터

97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내일(6월 2일)부터 5일(목)까지 매일 오후 6시 - 10시에 총현교회당에서 실시된다. 이 강습회는 동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각부의 교사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있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한다면 더욱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를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총현복지관

전국 장애인체전, 사생대회 참가

한일 친선 축구대회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상무종합운동장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육상, 수영, 보치아, 골볼, 휠체어테니스 등 모두 17개 종목에 예선전을 거쳐 전국에서 선발된 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에 총현복지관에서도 2명의 선수가 육상, 탁구 등 3개 종목에 참가하여 선전하였다. 모두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전국체전에서 2명의 훈련생이 본선 진출을 하여 경험을 쌓은 것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의의를 가질 수 있다.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계 당일 날에는 전체 복지관 훈련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응원을 하였고, 비록 경기에 져지만 꽃다발을 건네 주는 등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장

서만수 선교사 소식

그 동안 중환자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던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선교위원장 노광현 장로와 선교위원회 지도 이승림 목사가 지난 5월 29일-31일, 서만수 선교사가 입원하고 있는 싱가포르 병원을 방문하여 서만수 선교사를 만나고 돌아왔다. 서만수 선교사는 온 교회가 위하여 기도해 준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선교위원회는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키 위하여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회의 각 기관과 총현의 성도들이 성심성의껏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에 대해 성도들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 지난 5월 26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진행된 총현기도원 설립 19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가 은혜가운데 마쳤다. 대구 북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윤희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된 이번 부흥사경회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